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8일 목요일 음 8월 13일(11물)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 주	0%
20%	성 산	0%
10%	고 산	0%
20%	서귀포	0%

맑음

제주는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2℃, 낮 최고기온은 27~28℃로 예상된다. 아침 사이 중산간 이상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운전 시 유의해야겠다.

	해뜸 06:12 해짐 18:51		달뜸 17:50 달짐 03:12
물때	만조 08:50 21:56		간조 03:37 15:20

식중독지수 경고

자외선지수 매우높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구름 많음	22/27℃
모레	흐림	22/27℃

월드뉴스

‘인도 IT 도시’ 벵갈루루 폭우로 마비

도로와 가옥 등 침수 피해

물에 잠긴 벵갈루루의 도로에서 트랙터를 타고 이동하는 시민. 연합뉴스

‘인도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정보기술(IT) 도시 벵갈루루가 폭우로 인해 곳곳이 마비됐다.

7일(현지시간) NDTV 등 인도 매체와 외신을 종합하면 인도 남부 벵갈루루에서는 최근 며칠간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일부 지역의 도로와 가옥 등이 침수됐다.

지난 5일 오전까지 24시간 동안 130㎜의 비가 내리기도 했고, 봄만 나할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1~5일 예년 평균 강수량보다 서너 배 많은 비가 왔다.

벵갈루루가 속한 카르나타카주의 주총리 바사바라지 봄마이는 “도시 내 164개 호수 가운데 69곳이 넘쳤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 도로는 무릎이나 허리까지 물에 잠겼다. 고급 주택가에서는 벤틀리 등 고가의 승용차가 침수된 모습도 보였다. 지난 5일에는 20대 여성이 감전사하는 등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벵갈루루에 자리 잡은 많은 IT 회사들은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했고, 일부 지역에는 휴교령도 내려졌다.

교통이 마비되면서 트랙터를 타고 출근하는 시민의 모습도 포착됐다. 트랙터는 고립된 주민 구조에도 투입됐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건일 편집국장 이윤형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목요담론

작지만 강한 우주 개척국가 룩셈부르크에서 배우다!

류 성 필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공학박사

우주산업 1000조 시대를 향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들도 우주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우주개발 30년 만에 2022년 6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하며 우리나라도 드디어 독자 우주 기술을 지닌 나라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 달 탐사선인 ‘다누리’가 미국 플로리다주 우주기지에서 올해 8월 5일에 성공적으로 발사가 돼 달 탐사에 대한 새로운 길이 열렸다.

유럽의 우주 개척국가 룩셈부르크는 면적 2586㎢, 인구 약 64만명, 평균 소득이 무려 11만 달러로 1인당 GDP가 미국의 배가 되는 세계 1위의 나라이다. 제주도 면적의 1.4배 정도인 나라로 지난 30여년 동안 룩셈부르크는 유럽에서 우주산업을 가장 역동적인 민간주도 산업으로 성장시킨 국가이다.

룩셈부르크의 통신위성서비스 업체인 SES(Societe Europeenne des Satellites)는 1985년에 설립돼 정지궤도 위성과 중궤도 위성을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통신, 방송, 디지털 데이터 등을 중계하는 회사로 매출액과 이익에 있어 세계 최대 위성 운영 및 서비스 기업 중 하나이다. 그리고 LuxSpace, Euro-Composite 등을 포함한 30여개의 우주산업관련 기업들이 룩셈부르크에 자리 잡고 있다.

룩셈부르크는 유럽 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의 회원으로, 현재 진행 중인 ESA의 대표적 프로그램인 ‘오로라 계획에 의한 유인·무인 태양계 탐사 계획(2025년까지 화성에 유인 우주선을 착륙시키고, 2033년까지 태양계의 모든 위성에 유인 우주선을 보낸다는 것이 중점 사항)’에도 참여하고 있다. 룩셈부르크의 우주산업은 항공우주산업에서는 보기 드물게 1985년 SES의 설립과 투자결정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탄생하게 됐는데, 현재 룩셈부르크의 우주클러스터의 대표는 유럽에서 가장 멋지고, 혁신적이며 성공적인 다각화 정책이라 평하고 있다.

우주산업에 혁신적인 경제를 만들고자 룩셈부르크 대학에서 우주산업분야 대학원 과정을 만들어 다양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원은 우주산업기업들과의 긴밀한 파트너쉽을 통해 우주관련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뛰어난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통해 정부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다.

눈여겨볼 것은 2019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주산업 스타트업 컨텍(CONTEC)이 룩셈부르크의 우주산업에 참여하기 위해 지사를 설립했다는 것이다.

작은 국가인 룩셈부르크에서는 우주산업분야를 탄탄하고 역동적이며 혁신적인 분야로 성장시키기 위해 실용성과 유연함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정책 의사 결정자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고, 그들 역시 기업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해 투자,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 마련 등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열린마당

제주자치경찰 기마대의 역할

강 우 성
제주자치경찰단 기마대 순경

제주자치경찰단 기마대는 제주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수행을 위해 2012년 창설,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4년 제주가 전국 최초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8년째 운영평가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을 만큼 제주자치경찰 기마대의 숨은 노력이 있다.

제주자치경찰 기마대는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명예기마대원 활동 및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홍보 등 제주 말산업의 가치를 높이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됐던 각종 행사가 재개됨에 따라 대정마농축제 등 다양한 지역문화 행사에 참여해 축제를 풍성하게 했다. 조선시대 때 궁궐이나 관아에서 행해지던 제주목관아 수문장 교대의식 퍼레이드에 참석해 전통문화 재현을 통한 관광 브랜드화를 위해 앞장섰다.

또한 차량 순찰이 어려운 올레길, 사려니숲길 등 도민 및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에서 기마순찰 활동을 함으로써 안전 제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시에 특수학교에 찾아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승마체험을 통해 신체를 발달시키고 말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를 순화시키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자치경찰 기마대는 말산업이 제주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제주만의 특색있는 다양한 기마 콘텐츠 개발을 통해 말의 성지 제주로 자리매김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행복지킴이 통장 들어보셨어요?

한 성 순
이도2동 주민복지팀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는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 번씩 복지급여가 지급된 계좌가 압류돼 발을 동동 구르는 전화를 받게 된다. 통장이 압류되면서 압류된 금품이 복지급여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다.

일단, 통장이 압류되고 나면 그 불편은 상당하다. 압류된 계좌의 금품이 수급품인 것을 증빙하고 법률적인 지원을 받아 관할 법원에 압류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법원에서 해당 서류를 검토한 후 압류된 은행에 해제통지서를 발송하기까지 두 달여를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지출이 묶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중은행, 우체국, 신협 등 금융권과 협약으로 ‘행복지킴이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압류방지용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복지급여 외에도 실업급여, 국민연금, 보훈급여 등에도 각각의 수급품의 압류방지를 정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에서 상담할 수 있다.

실명의 수급자 1명 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지급하는 복지급여만 입금이 되고 본인이나 제3자의 추가 입금은 제한된다.

압류로 인한 불안 때문에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계신다면 압류방지용 행복지킴이통장을 권해드린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